



INKE Spring 2008, Mexico City에서 성료

지난 2월 28일에서 3월 1일까지 3일간 멕시코시티 웨라톤 이사벨 호텔에서 열린 'INKE Spring 2008' 이 성황리에 종료되었다. INKE Spring은 매년 상반기에 INKE의 해외지부에서 진행되는 비즈니스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개최지인 인케 멕시코시티 지부 박성근 의장(위즈슬루션즈 대표)의 주도로 진행되었다.

멕시코 대표 IT단체인 CANIETI와의 업무협약체결

행사 첫날인 28일에 벤처산업협회는 멕시코전자통신IT산업협회인 CANIETI와의 업무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CANIETI는 25년 역사를 자랑하며 700여 개의 회원을 두고 있는 멕시코의 대표적인 전자통신 및 IT산업 단체다. CANIETI는 중남미 최고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IT 강국으로 성장하겠다는 국가적 비전을 한국 벤처기업들과 파트너십을 통해 이루기 위해 벤처산업협회와 상호협력을 도모하게 되었다.

이번 MOU에서 두 기관은 △양국 IT산업의 지식과 연구조사자료 공유 △양국 IT기업 간의 비즈니스 매칭 주선 △양 기관의 대표단 파견을 통한 기술과 업무방안 교환 △양국의 무역 활성화를 위한 행사교류 등에 합의했다. 또한 양 기관은 '중남미 진출전략 포럼' 을 갖고 이를 매년 정례화하기로 했다.

협약식에서 에두아르도 루이즈 멕시코전자통신IT산업협회장은 "한국의 벤처기업들이 멕시코에 많은 관심을 갖고 두 나라가 협력을 통해 IT분야의 발전을 주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멕시코가 중남미 국가 중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만큼 양국 벤처기업인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행사 참가기업인들은 "교역 확대를 위해 양국 벤처기업들이 역할을 다하자"고 다짐해, 앞으로 양국간 활발한 기업진출과 교류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이번 인케스프링에는 멕시코 정부차원의 호응도 높았다. 멕시코 정부산하단체인 멕시코·미국과학기술협력재단(FUMEC), 멕시코투자청/수출입은행/무역진흥공사 기능이 통합돼 발족된 멕시코투자청(PROMEXICO)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졌다. 리라 아레차바라 FUMEC 이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 양국 간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하고 벤처기업들이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네일 다비라 멕시코 투자청 이사는 "한국 벤처기업들의

멕시코 투자를 환영한다"며 "앞으로 멕시코에 진출하는 한국 벤처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긍정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다.

한국 벤처 기술의 우수성 선보여

이번 행사는 'INKE Spring' 기간 개최되었던, 멕시코 최대의 정보통신 행사 '엑스포 콤 멕시코' 에 한국관을 마련하고 한국 벤처의 탄탄한 기술력을 선보였다. 멕시코와 해외에서 300여 개 정보통신 관련 기업이 참가한 이번 전시회에는 엔컴퓨팅(네트워크컴퓨팅), DM테크놀로지(LCD TV), 소만사(메일솔루션), 아크로엠(휴대폰 비상충전기), 셀로코(DVR), 넥스트링크(중계기), 에스비엔테크(비디오폰), 씨테크(SAW 필터), 알에프윈도우(중계기), 코어세스(통신장비), 세화피앤씨(휴대폰보안필름)등 총 11개의 국내 벤처기업이 활발한 바이어 상담을 벌였다.

행사기간 동안 우수벤처기업 제품설명회와 인케 워크숍 등도 함께 진행됐다. 우수벤처기업 제품설명회에서는 아크로엠의 휴대폰 비상충전기와 세화피앤씨의 보안용 필름이 인케 각 지부 의장들에게 소개되었으며, 인케의 지부의장들은 각 시장에 맞는 전략과 향후 해외시장 진출 등에 관한 조언과 협력방안에 관해 논의하였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인케 의장은 홍병철 의장을 비롯, 황보덕 상파울루지부 의장, 오동희 부에노스아이레스지부 의장, 김동규 런던지부 의장, 맹웅주 시드니지부 의장, 웨인 김 토론토지부 의장, 정병화 LA지부 의장 등이다.

전대열 협회 부회장은 "이번 행사가 중남미의 경제대국 멕시코를 이해하고 양국 벤처기업 간의 만남을 통해 협력을 모색해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협회 차원에서 인케 멕시코시티 지부와 공동으로 장기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벤처산업협회는 멕시코전자통신IT산업협회 CANIETI 업무협약



멕시코 최대의 정보통신 행사 '엑스포 콤 멕시코'에 마련된 한국관. 한국 벤처의 탄탄한 기술력에 모든 부스가 성황을 이뤘다.



멕시코시티 웨라론 이사벨 호텔에서 열린 'INKE Spring 2008' 워크숍 및 INKE 지부장들을 대상으로 한 우수벤처 기업제품 설명회



INKE 련리지부 김동규 의장

멕시코시장의 재발견 _

이번 멕시코시티에서의 인케스프링은 멕시코 시장의 새로운 가치를 알게 해 준 기회가 되었습니다. 멕시코 시장은 북미 시장과는 무역 장벽이 없이 이미 잘 연결되어 있는 시장입니다. 따라서 멕시코 시장을 넘어 북미 진출의 교두보 역할이 가능한 높은 지리적 산업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무역의 큰 관건 중 하나인 언어문제의 경우도 멕시코가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있기에 대부분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타남미 국가와 유럽의 스페인, 포르투갈 까지도 시장 확대 가능성이 있겠다는 긍정적인 확신이 들었습니다. 특히 정부 산하 기관인 ProMexico의 낙후되어 있는 도로, 철도, 항만 시설 등등의 산업 시설 전반 개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어 IT분야를 포함한 건설 등 전반에 걸친 한국 기업들의 진출 여건이 좋은 상황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제 한국 벤처의 철저한 준비와 민관의 효율적인 지원이 호응을 맞춰 멕시코시장에서 선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때가 온 듯 싶습니다.

멕시코에 한국 벤처의 뜨거운 바람이 불기를 기대하며 _

INKE Spring 2008의 참가기간 동안, 멕시코 국가차원에서 제가 활동하고 있는 아르헨티나와 똑같이 한국 벤처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 동시에 우리의 벤처마강대상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멕시코로의 한국 벤처의 진출수준에 따라, 멕시코시장이 다른 중남미국가들도 이끌어 한국 IT, BT, NT, CT 벤처기업진출의 베이스캠프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남미의 한나라에서 살고 있는 한 사람으로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한국 벤처의 남미 진출지원에 미력이나마 일조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인케스프링에 참가할 때마다 늘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항상 '비즈니스'와 '한인 벤처사업가간의 발전적인 네트워킹'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새로운 취임하신 홍병철 의장님의 열정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수고를 너무 많이 하신 멕시코의 박성근 의장님과 협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INKE 부에노스아이레스지부 오동희 의장